

##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7. (수)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동탄이 들썩... 반도체가 불지핀 머니무브	경제	톱
2	한·일 비혼 커플 늘어... 대기업은 사실혼도 축하금·육아휴가	경제	
3	고기 코너 식기류로 채운 홈플러스 "수저라도 팔아 다시 일어나겠다"	사회	

### (1)기사/뉴스요약

올 들어 4월까지 증시에서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작년 1년 치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증시 활황과 집값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자금 대이동(머니 무브)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중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4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연간 금액(3조8829억원)의 62.8%에 달한다.

주택 시장에 유입된 증시발 자금은 2022년 5765억원에서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7조원 넘는 돈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도 올해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965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1조3339억원)의 72.4%에 달했다. 역시 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기세다.

증시발 머니 무브 후폭풍은 반도체발 성과급이라는 호재가 더해진 경기 동탄 아파트 시장에서 전례 없는 폭등세로 분출되고 있다. 동탄은 북서쪽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가 있고 동쪽으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동탄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1.98% 폭등했다. 같은 기간 경기 평균 상승률(0.20%)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장에서는 폭등세로 인한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매도 계약 직후 집값이 수억 원씩 뛰자 집주인이 가계약금의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깨는 '배액배상'이 일상이 됐다. 가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매도인이 6000만 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파기한 뒤 시세를 올려 다시 내놓는 식이다. 매수자들은 집주인의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입금하는 '익일 중도금 납부'가 새로운 계약 관행으로 등장했다.

현지 부동산 업소 관계자들은 "최근 아파트 매수자의 30~40%는 가족 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이 포함된 경우였다"며 "주식 처분으로 4억~5억원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요점: 4월까지 증시에서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작년 1년 치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역대급 자금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2)기사/뉴스요약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일본 등에서는 비혼 동거나 사실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생활하는 것)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종 혜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결합을 배제한 채 친구 같은 동거인으로 함께 사는 '우정 결혼'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혼인이 요구하는 가사 분담이나 양가 부모에 대한 의무 등은 부담스럽지만, 혼자 살 때 드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약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류상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제도적 혜택을 공유하기도 한다.

일본 사회 분위기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해 1~2월 일본의 주요 대기업 64곳을 통해 설문한 결과, 전체 중 37곳(57.8%)이 사내 규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혼인 직원에게도 결혼 축하금, 육아휴가, 가족 수당 등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도 최근 혼인으로 역이지 않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혼 커플 등이 포함된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4421가구에서 2024년 58만413가구로 늘었다.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7.4%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2년 45.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가족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서 가족 범위를 확대해 비혼 커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요점: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일본 등에서는 비혼 동거나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서 가족 범위를 확대해 비혼 커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3)기사/뉴스요약

1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3600평이나 되는 매장에 손님이 10명도 안 됐다. 이 마트에 근무하는 직원(23명)이 손님보다 많았다. 매대도 텅텅했다. 신선 코너엔 고기나 생선 대신 국자 같은 식기가, 주류 코너엔 술은 없고 텀블러와 코펠이 진열돼 있었다. 그마저도 PB(자체 브랜드) 상품이었다.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매장에서 15년째 근무 중이라는 40대 직원 김모씨는 “월급을 못 받아 고1 아들의 주택 청약까지 껴다”며 “그래도 회사가 인건비와 임대료를 아꼈으니 살아나기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없는 고기 대신 수저라도 팔아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이었다.

홈플러스가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1996년 ‘까르푸’란 이름으로 문을 연 홈플러스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커머스라는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수년간 이어진 적자로 작년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4월 30일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노조의 ‘월급 포기 선언’ 후 한 달 반이 흐른 지금, 상황은 더 악화했다.

작년 2월 126곳이었던 홈플러스 점포는 지난달 104곳으로 줄었다. 이달 초에도 37곳이 추가로 문을 닫아 현재 영업 점포는 67곳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직원 수도 작년 2월 2만명에서 현재 900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점포가 문을 닫으면서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다.

본지가 찾은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그나마 살아남은 점포다. 하지만 분위기는 암울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3명은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포기를 선언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긴 마찬가지다. 회사가 월급을 줄 형편이 못 돼 직원 9000명 모두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한때 국내 2위 대형 마트였던 홈플러스 노조는 강성으로 꼽혔다. 2007년 사측이 비정규직 계산원 등 1000여 명을 해고하려 하자 512일간 파업해 비정규직 2000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던 노조다. 그랬던 노조가 ‘월급 포기’를 선택한 것은 노조원 상당수가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가 경쟁력을 잃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쿠팡에 이어 알리·테무·쉬인(알테슈)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순식간에 유통망을 장악해 나갔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홈플러스 경영은 계속 악화됐다. 이에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현 시점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회생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잖다.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마트의 수익 모델인 ‘규모의 경제’가 무너진 점이 홈플러스 회생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싼값에 대량으로 매입해 수익을 남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매장 수가 줄어들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가격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이는 영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급기야 납품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신도림점뿐만 아니라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당수 홈플러스 매장의 매대는 점점 비어 가고 있다.

지난 11일 찾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도 정육 코너 매대에 고기보다 아이스박스과 효자손, 나무 수저가 더 많이 진열돼 있었다. 주류 코너에도 술 대신 홈플러스 PB 제품인 ‘심플러스 고구마칩’ ‘심플러스 감자칩’이 채워져 있었다. 정육 코너의 한 직원은 “매장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매대를 비워둘 순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식품 코너 사이사이엔 모자나 잠옷, 이불 같은 물건이 진열돼 있었다. 식품 코너를 찾은 한 손님은 “물건이 없네”라고 한마디 하더니 장을 보지 않고 마트를 떠났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기업 회생에 실패하면 긴급 운영 자금으로 투입한 1000억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추가로 대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은 “배임 논란을 피하고, 주주 설득을 위해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점: 작년 2월 126곳이었던 홈플러스 점포는 67곳으로 줄었다. 유통 전문가들은 ‘규모의 경제’가 무너진 점이 홈플러스 회생 전망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머니무브	증시나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낮은 금리가 지속될 때 자금이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부동산, 주식채권 시장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시사상식사전
2	토큰증권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시사상식사전
3			

### ●사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실] “급식·청소 업체와도 본사가 교섭” 무한 교섭 현실화 / 사회

중앙노동위원회가 급식·청소 등 생산과 관계없는 협력 업체들도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현대차가 구내식당, 경비 등 하청 업체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무한 교섭’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선 구내식당 등은 ‘사용자성’과 무관한 대표적 사례로 예시돼 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는 노후 설비 교체 권한을 이유로 이와 정반대로 결정했다. 같은 정부기관끼리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정대로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외주를 줄 이유가 줄어든다. 사실상 직접 고용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외주를 축소하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득 될 것이 없다.

**노동위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 구성되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노동위가 ‘친노동’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21년 중앙노동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는데 이때 박수근 중앙노

동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장이 됐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해 판정을 내린다. 박 위원장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노동위는 정부측 인사 비율이 높아 주요 결정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데 친노동계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태도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청 업체 노조와는 산업 안전 등 한정된 의제로 교섭하도록 하고 임금, 성과급 인상 등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중노위가 노조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도저히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